

삶과 여행의 불안에 관하여

최명진 차장
예산회계팀



빛바랜 간판이 눈에 들어온 건 내비게이션이 잘못된 길을 안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차를 돌리려던 순간이었다. 나는 다시 방향을 잡고 돌담 위로 살짝 내비친 간판을 따라 바닷가로 난 좁은 길로 얼마간 차를 더 몰았다. 적당한 공간에 차를 세우고는 잠시 앉은 채로 시간을 보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서야 차에서 내렸다. 창고로 알고 지나치려던 식당은 슬레이트 지붕의 허름한 건물이었다. 지붕 옆엔 간판이 삐딱하게 걸려(엷혀 있다고 해도 틀린 것 같진 않지만) 있었고, 이따금 바람에 흔들렸다. 일정한 궤도를 그리지 않고 흔들리는 것이 불안했지만 나는 낡은 간판에서 이상한 편안함을 느꼈다.

식당 미닫이문에 눈을 바짝 붙여 움직임이 있음을 확인하고는 문을 열었다. 식당에 들어서자 어두운 내부보다는 넓은 평상으로 된 외부 공간이 눈에 띄었다. 아직 점심을 먹기에는 이른 시간이라 잡담을 나누던 아주머니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나에게 쏠렸다. 한 아주머니가 얼굴만 뒤로 한 채 밖에 나가 앉아도 좋다는 신호를 보냈다. 나는 식당 내부에서 다시 외부 공간으로 난 문을 열고 나가 평상에 자리를 잡았다. 평상 위로는 원래 무슨 색이였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바랜 천막이 적당히 늘어져 걸려 있었다. 천막을 지지하는 철제 기둥은 바닷바람에 삭아 툭하고 치면 그만 내려앉을 것 같았다. 칠이 군데군데 벗겨진 탁자 위에 아무렇게나 놓인 수저는 위생이 못 미더웠지만 알록달록한 등산복을 입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마음은 한결 편안했다.

선글라스를 벗자 바위에 부서지는 작은 파도가 너무 선명해 눈을 찡그렸다. 선명함이 주는 청량감이 팽팽했던 신경줄을 느슨하게 풀어놓자 맥이 탁 풀렸다. 오른쪽 무릎엔 별이 살짝 걸렸을 뿐이었지만 돋보기 초점에 맞은 듯 따가웠다. 나는 그늘막 아래 멍하니 앉아 별에 내어놓은 다리에 느껴지는 나른함과 통증 사이의 묘한 감각을 즐겼다. 잔물결이 쉼 없이 쏟아내는 날카로운 빛들이 아니었다면 먼 바다는 물결무늬를 품은 채 그대로 멈춰있는 것 같았다. 처음으로 여유가 불안의 흔적을 지워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식당에도 손님이 한둘씩 들어섰다. 옆 자리에는 주위 공사장에서 일하는 듯한 인부 셋이 앉았다. 인부들의 험글거리는 시선이 불편해지기 시작할 즈음 나는 앞에 놓인 한치 물회 한 그릇을 허겁지겁 해치우고 계산을 치렀다.

다시 차에 앉아 한참을 더 바다를 바라보다 지도를 폈다. 딱히 갈 곳이 생각나지 않았다. 지난 몇 년간 제주를 올레길을 위해 찾았다. 아직 올레길이 만들어지는 중이었고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도 몇 명 되지 않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기는 그만이었다. 그러나 유명세를 타고난 뒤의 올레길은 달랐다. 나에게서는 다른 공간이 필요했다.

차를 빌린 건 중산간 지역을 자유롭게 다니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차를 타고 달리는 길은 내가 걷던 길과는 너무나 달랐다(그 동안 면허가 없었다). 5·16도로와 1100도로에서 뻗어져 나가는 아름다운 산록도로 위의 나는 무언가를 볼 수도, 생각할 수도 없었다. 그저 굽어진 길을 따라 운전대를 돌리고, 뒤 따라 오는 차와 앞선 차 사이에서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느라 우거진 숲길을, 펼쳐진 목장을 살필 여유가 없었다. 잠깐 차를 세우고 주위를 둘러보긴 했지만 차를 두고 가고 싶은 길로 멀리 들어설 수도 없었다. 나는 그제야 자동차라는 것이 두 지점을 빠르게 이어주는 목적 지향적 수단임을 깨달았다.

생각해 보니 첫날의 해안도로도 그랬다. 조금 돌아 해안도로를 달리려던 생각은 내비게이션이 가만두질 않았다. 내비게이션은 해안도로에서 드넓은 간선도로 위로 나를 자꾸 끌어내려했고 최단 경로를 재탐색하겠다는 경고를 신경질적으로 뱉어냈다. 애써 외면했지만 재탐색이라는 단어는 내면에 자리한 불안을 정확히 자극했다. 가야할 목적지에서 멀어져 있다는 불안은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삶의 불안과 뒤엉켜 신경줄을 조금씩 조여 왔다.

나는 지도를 덮고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예정된 시간보다 하루 일찍 차를 반납했다. 그리고는 여행의 불안이 출근시간 만원 버스를 타기 전 밀려오는 삶의 불안보다는 괜찮지 않았냐고 나를 위로했다.

